

대구 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76-31
대표전화 : 053-940-7515



안녕하세요. 저희 대구파티마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라는 이름이 생겨나고 그 이름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호스피스란 아직도 생소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지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원과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일반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 어떤 업무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기회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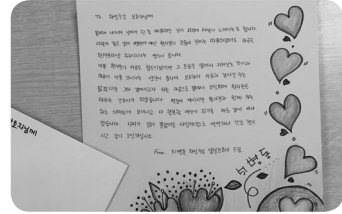
대구 파티마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가 가톨릭교회의 전통인 예수그리스도의 치유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병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병원 이념 실천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9개 병상으로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 2001년 5월 호스피스·완화의료 위원회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2003년 5월 호스피스·완화 의료과가 개설되었으며 가정 호스피스 사업도 새로이 시작 2005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현재는 13개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치 목적의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질병이 점차 진행되어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 기간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인 문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며 말기 암 환자들이 남은 삶을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족들이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 봉사자들과 완화의료 도우미가 함께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여 신체 청결 및 안위를 도모하고 지친 가족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병실 4개 (13병상: 특실 1개, 4인실 3개)와 가족실, 임종실, 상담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돌봄





제공은 통증과 증상조절 및 신체적 돌봄으로 안위를 제공하고, 각종 요법을 통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각종 연주회, 마술, 기념일 함께하기, 보호자 식사와 간식 제공 등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종교에 따라 요구되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의 사회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지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심리 사회적 상담 및 장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별 후에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의 끝자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분들에게 '하루'의 의미란 참으로 커다란 것입니다.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는 환자들은 죽음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환자들과 그 가족

들에게 기억에 남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중 환자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활동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환자 가족에게 손 편지쓰기'입니다. 예쁜 색지에 마음을 담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들을 직접 그려 넣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과 쌓은 라포(rapport)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손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글이 채워지고 나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완성됩니다. 편지가 전달되면 이 편지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리게 합니다. 편지 전달 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고 감사의 표현을 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저희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별 가족들이 그때 그 편지가 많은 도움 되었다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신체의 평안을 줄 뿐 아니라 마음의 행복함까지 나누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